기독교인 간의 재판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속한 교단에서 교직(목사) 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단적으로는 소송을 최대한 피하도록 권유하고, 또 소송을 권유하거나 소송을 방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소송을 제기한 교직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교직 동료들에게도 같은 문서가 보내졌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두 분의 변호인의 의견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중 한 분은 크리스천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목사님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둘 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재판권과 실례를 들며 성경도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빼앗는 것은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변호사는 구약성경의 가르침과 실례만 이야기하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님들은 교직(목사)의 소송을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기독교 신앙의 문제로는 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 목사인 저는 제 견해를 짧게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께 저의 신앙적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독자들 중에도 그리스도와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성경의 규정이나 가르침보다 더 우수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혹은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분의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구약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공평원칙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법은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모든 이스라엘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시대를 앞서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 혹은 재판에 호소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원칙에 의해서도, 바울이 가이사르에게 항소한 사례에서도 분명합니다. 다만, 바울이 스스로 재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고하게 고소당해 어쩔 수 없이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높은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가르침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원칙에 따라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점은 앞서 지적했듯이 두 변호사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더 높은 그리스도의 윤리규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것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 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신 것을 시작으로, "옛 사람들이 '・・・・・'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율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더 높은 윤리를 제시하신 것이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 장 21 절~48 절) 꼭 성경의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눈에는 눈, 귀에는 귀'의 윤리, 재판에 의한 공정한 심판의 윤리가 아니라, 용서의 윤리로 살아야 합니다. 일반 유대인으로서, 혹은 일반 인간으로서 속옷을 빼앗기 위해 고소하는 자에 대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일백만 가자고 강요하는 자와 함께 이백만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에게 주어진 더 높은 윤리,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려는 자에게 요구한 윤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을 바꾸고 말을 바꾸어 자신을 따르려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포기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교직(목사)이라면 누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더 높은 '그리스도의 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과 상충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신도들이 서로 고소하는 것을 매우 슬퍼하며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 장 1 절~8 절) 원래는 성경의 이 부분을 모두 인용하고 싶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① 교회 내 다툼은 외부의 재판에 호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과 ② 애초에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의 뛰어난 학자로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재판에 호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도 참지 않느냐. 왜 오히려 속지 않습니까?"라며 고린도 교회 신도들의 낮은 영적 수준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높은 윤리적 원칙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유대인도, 불신자 이방인도 아닌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약이 가르치는 '권리'에 호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권리 포기'라는 더 높은 윤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두 변호사의 견해에는 이 바울의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일반적 원칙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지향해야 할 높은 윤리와 구별, 혹은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높은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불의에도 굴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오른 뺨을 치는 자에게 왼 뺨도 돌려대라'는 원칙, 바울이 가르친 '고소하지 말라'는 원칙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고, 또 그렇게 신도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의가 만연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불의는 어느 곳에나 만연해 있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정당한 재판으로 세상에 불의가 만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 장 4~9 절에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삽입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권리 포기의 궁극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갈등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재판에 제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가?

저는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신앙적 합의가 일본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 인권'에 위배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문제, 신앙의 자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신앙의 자세가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비문법이 있습니다. 교직자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직자는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교직자는 포르노 사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교직자는 주류 판매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직자는 도박을 생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더 있을 것 같다. 모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교직(목사)에 적용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현재 일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 개인의 자유이며,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법으로 허용된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우리의 신앙상의 문제이고, 헌법은 그런 것을 '신앙의 자유'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직(목사)도 재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직이나 두 분의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교단은 술에 취해 구타를 일삼고 이웃에 폐를 끼치는 목사를 면직이나 해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첩을 세 명이나 둔 목사가 있어도 첩을 두는 것은 일본 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면직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재판에 호소하느냐 마느냐는 법적인 문제,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칙, 용서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신앙상의 문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 교회 안에 나쁜 신도들이 있고, 혹은 나쁜 목사가 있어서 신도들을 속이고, 농락하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 정말 그렇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은 그런 목사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그리스도 시대에는 그런 부도덕한 자들이 없었을까요? 현대보다 오히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는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가르치셨고, 바울은 오히려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휘두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기쁨으로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비천한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십자가까지 순종하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려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역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의 크기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사의 크기, 그 가치, 그 엄청난 부 때문에 세상의 부도, 명예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고 체면을 잃어도 생명의 면류관이 빛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은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소하려는 자매도, 고소당하는 형제들도 함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서의 태도야말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신앙적 합의를 하고, 그것이 일본 헌법과 민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졌다고 해도 조용히 패소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제 신앙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앙, 바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앙을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체험과 기독교 신앙
일본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
오브 갓 교단
니시큐슈 전도소 사사키 마사아키

기독교 신앙은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성경적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것 같지만, 그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신자 개개인의 신앙의 원점이며, 가는 곳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간증의 내용이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개신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해에 의한 성경적 신앙'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오순절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입장도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신앙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체험을 매우 중시하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학은 어떤 형태로든 체험을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령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체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의 중요한 원점으로서 항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험, 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표방하는 경험은 성경 속에 모범이 될 만한 선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체험과 같은 체험이 성경에 분명하게, 단지 하나의 예가 아니라 규범이 될 수 있고 본받아야 할 형태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동반한 성령세례에 대해서는 누가가 분명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스승 바울의 감수를 받으며 쓴 것으로 보이는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0 장과 11 장의 고넬료의 성령강림과 제자들의 토론 기록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①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세례가 주어졌음. ② 베드로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그들이 방언을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 ③ 베드로의 이러한 판단이 당시 제자들의 공통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중에도 성령세례는 받았지만 방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방언을 동반하지 않는 진지한 기독교적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세례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동반하지 않는 성령세례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성경의 실례를 들어 증명해야 한다. 개인의 그리스도인 체험을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체험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될 만한 실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넘어지는 현상은 어떨까요?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중요성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넘어져야 한다, 쓰러져야 한다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선전하거나 쓰러진 것을 자신의 신앙의 중요한 경험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가루가 내렸다느니, 금니가 생겼다느니 하는 '기적'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것 역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안수를 통해 사도의 은사를 나눠준다든지, 예언을 연습한다든지, 조상의 악행의 영향을 기도로 끊어낸다든지,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기독교적 체험인지 성경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증거합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한 체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 3 의 천국'이라고 스스로 부른 놀라운 하나님 체험, 즉 성령 체험을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경험한 것일 뿐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는 방언을 거의 모든 크리스천의 필수 체험인 것처럼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에게 권유하고, 자신이 누구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3 의 천국' 체험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의 체험으로만 이해하고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권장해야 할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 Translated with www.DeepL.com/Translator (free version) ***